

국민들은 거리의 공개공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용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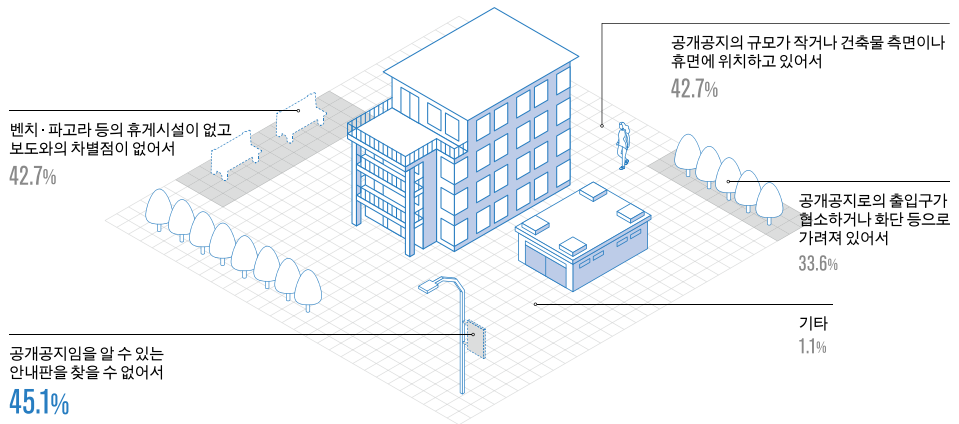
건축공간연구원은 공개공지 개소 수가 많은 도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개공지에 대한 인식과 이용행태를 알아보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였다. 2020년 9월 7일부터 9일까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 성인 5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통계자료실을 통해 조사 및 분석 내용의 일부를 소개한다.

Q 평소 거리에서 공개공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지?

공개공지 인식 용이성



공개공지 인식이 어려운 이유(복수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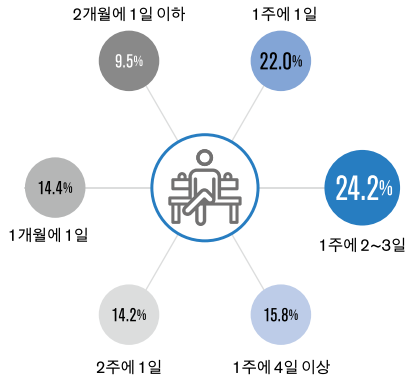
A 안내판을 찾을 수 없어 공개공지 발견은 어려운 편

응답자들의 68.2%는 공개공지를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공개공지임을 알 수 있는 안내판을 찾을 수 없어서’(45.1%)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공개공지가 작거나 휴면에 위치하지 않음’(42.7%), ‘보도와의 차별성 부족’(42.7%), ‘협소하고 인식하기 어려운 출입구’(33.6%) 등의 이유가 그 뒤를 따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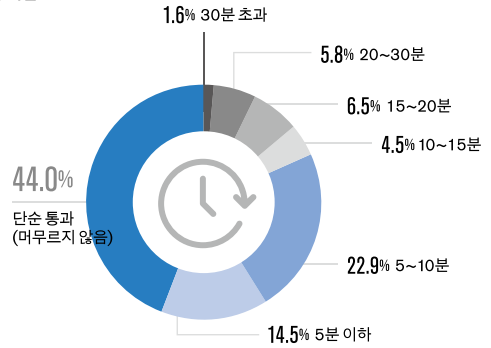
* 공공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건축법」에 따라 특정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일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소규모 휴식공간

Q 공개공지를 얼마나 자주, 어떻게 이용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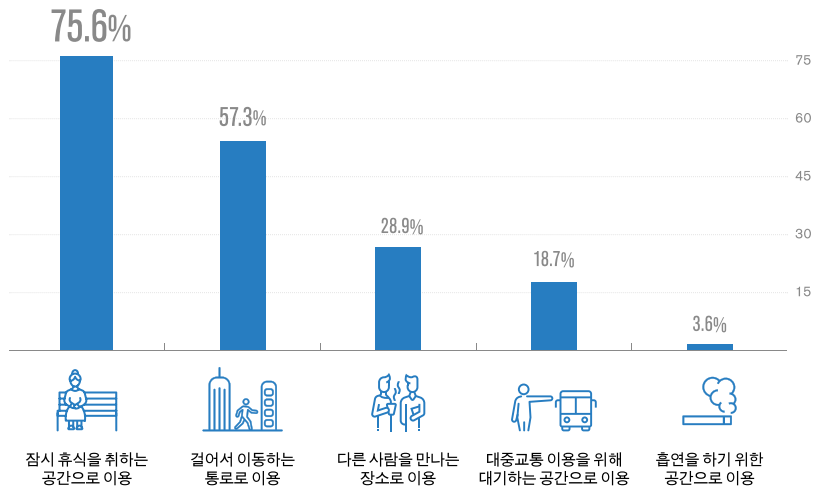
이용 빈도



머무르는 시간



공개공지
이용행태
(1+2순위)



A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이동하거나 잠깐 쉬어가는 공간으로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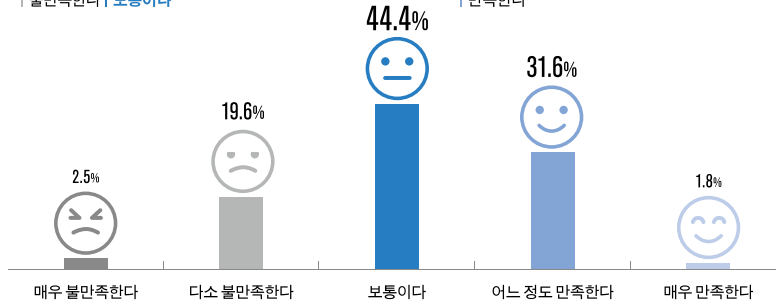
공개공지를 1주일에 한 번 이상 이용하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62.0%)이며, 응답자의 15.8%는 1주일에 4일 이상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공개공지가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 공공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공개공지를 이용하는 통로로 이용하거나 10분 이하로 머무른다는 사람들이 대부분(81.4%)으로, 오랫동안 공개공지를 이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공지 이용 경험이 있는 다수의 시민들은 '휴식공간으로 공개공지를 이용'(75.6%)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동통로로 이용'(57.3%)하거나 '다른 사람과 만나는 장소'(28.9%) 또는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장소'(18.7%)로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Q 공개공지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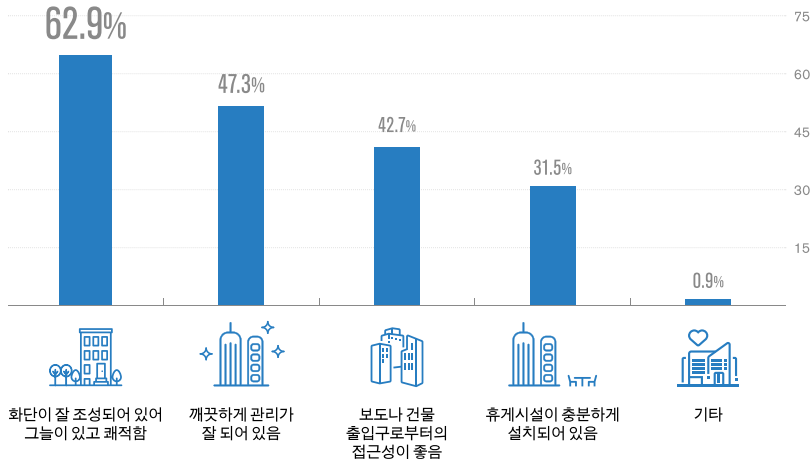
만족도



개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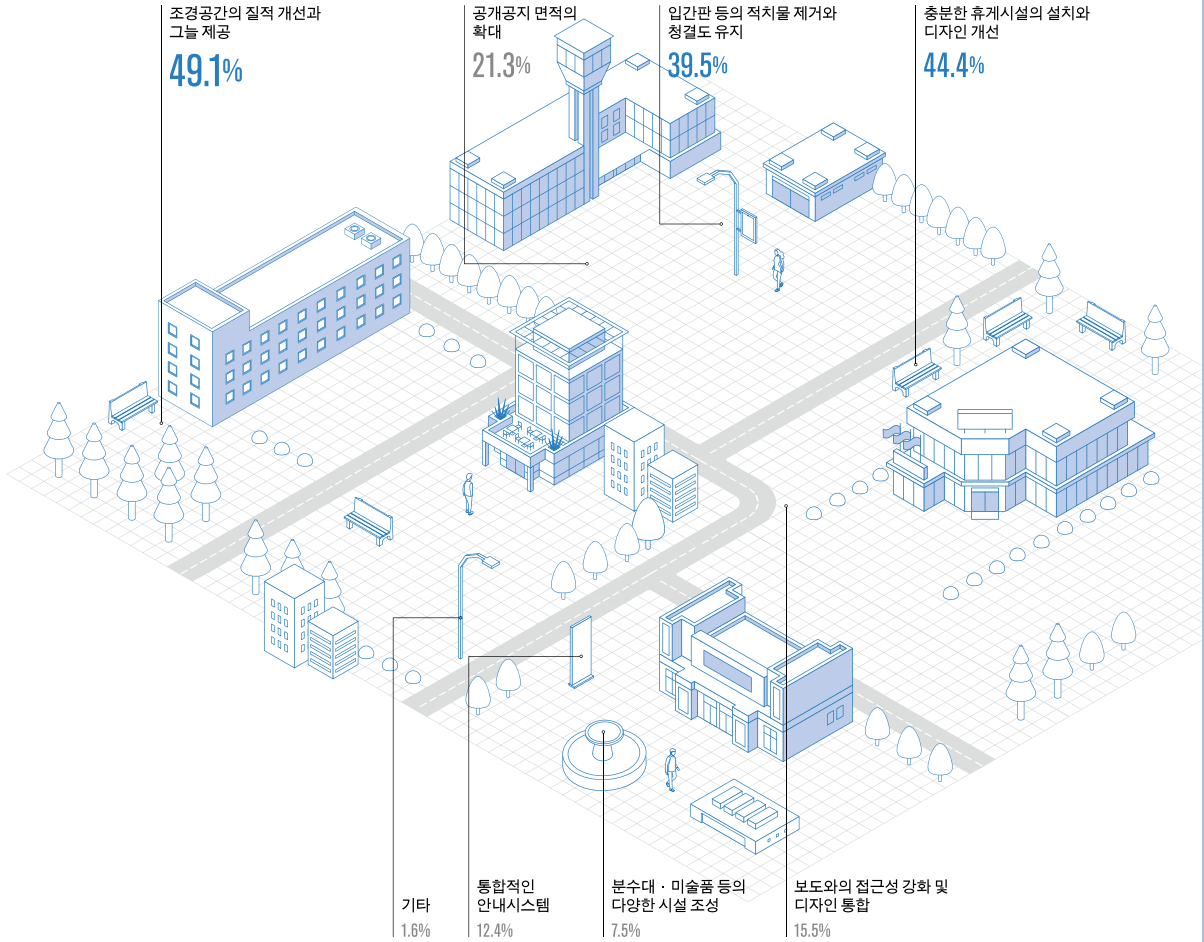
만족하는 이유
(1+2 순위)



A 화단이 잘 조성되어 있고 그늘이 있는 공개공지가 높은 만족도 제공

공개공지의 개수 수에 대해서는 비교적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현재의 개수 수에 대하여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자(336명) 중 83.3%는 더 많은 공개공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이용자들은 공개공지의 시설환경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가 높은 공개공지는 '화단이 잘 조성되어 있어 그늘이 있고 쾌적하다'는 응답(62.9%)이 가장 많았으며, '깨끗한 관리상태'(47.3%)와 '좋은 접근성'(42.7%) 또한 만족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Q 공개공지의 이용 활성화와 질적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A 잘 조성된 조경공간과 적절한 그늘, 충분한 휴게시설이 필요

많은 시민이 공개공지를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는 만큼 '잘 조성된 조경공간과 적절한 그늘의 제공'(49.1%) 및 '충분한 휴게시설의 설치와 디자인 개선'(44.4%)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적치물 제거 및 청결도 유지'(39.5%)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공개공지를 정비하여 '공개공지 규모를 확대'(21.3%)할 필요가 있음이 나타났다. 또한 '보도와의 접근성 강화'(15.5%)와 '안내시스템 통합'(12.4%)이 공개공지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